

## 제3의 물결과

### 한국의 비전



IPAK/명예회원 앨빈 토플러

**현** 재 한국은 당면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나 경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의한 변화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 동남아 여러 나라도 동시에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거대한 세계경제에 의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더 나은 직장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한국은 일약 세계적인 주도국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금융위기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 왔다. 1960년대에 현명한 결정을 하여 산업사회로 발전시킨 구시대로부터 지식기반 신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결정을 할 신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추가나 진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제2의 물결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수십만 개의 회사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마치 오늘날 닷컴 열풍과 같은 현상이었으며 이 때도 많은 실패 기업이 있었다. 따라서 요즘 닷컴 기업들 중 많은 기업이 쓸어지고 있는데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830년에 영국증권 시장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신 산업혁명 경제가 죽었다고 떠들어 대었다.

현재 4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는데 한국은 매우 빨리 적응하고 있다. 단지 중국과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5천만개의 디지털 스위치, 5억 개의 PC와 인터넷 사용자들을 묶어주고 있다. 이제는 진보된 사이버 기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에 의해 도로나 철도 등이 건설되고 있는데 미국도 예전에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자본을 많이 썼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그랬다. 한국 뿐 아니라 빈민국에도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부를 창출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전 경제학도 바뀌고 있다. 화폐도 전자화폐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변화는 더 빨라진다. 관리, 운영, 생산, 의사결정들이 시간을 다투게 되었고 급속하게 진전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이 이러한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 시켜 준다. 추가 비용 없이. 경제 전략, 생산, 미디어, 사회 집단들이 다량생산화를 벗어나야 한다. 사회 시스템만 보드라도 대가족제도, 소가족제도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들 통한 복합가족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는 고통을 동반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역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많은 분야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화를 비롯해서 정부의 역할이 그렇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해문제, 이민, 정보흐름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미디어의 힘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억명이고 산업화 시대 인구가 2억 5천명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인구는 천만 명으로 제1의 물결에서부터 제3의 물결에 이르기까지 혼재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사람들이 어떻게 의사 소통을 하며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산업화된 북쪽과 농업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남쪽 간의 싸움이었다. 제2의 물결과 제1의 물결과와의 이해상충이었다.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혁명과 생명공학이다. 놀랄 일이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정보기술이 생명공학을 혁신 시킬 것이며 그 다음은 생명공학이 정보기술을 혁신 시키고 나아가서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접목되어 경제를 혁신 시킬 것이다.

종사하는 일이나, 일하는 더 좋은 환경, 건강문제 등 회사와 조직원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이러한 좋은 점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로 눈을 돌리고, 정보기술이 내재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적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생산자, 노동자, 사회,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정보기술이 도와 줄 것이다.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경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하는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중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상품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내수 시장을 어떻게 증대 시킬 것인가 등은 말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쉽다. 단지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가 어려울 다름이다.

(이 글은 지난 6월 8일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장소:COEX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엘빈 토플러박사 초청강연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